

눈이 내린 자리

김홍숙

겨울은 눈의 계절입니다
눈은 대부분의 미인처럼
멀리서 볼 때 더 아름답습니다

눈 중의 제일은 산에 내린 눈입니다
나뭇가지에 얹힌 눈, 바위에 쌓인 눈...
자연이 그린 수묵화가 눈을 황홀하게 합니다.

산에 내린 눈은 눈물이 되어 마른 땅을 적시지만
도시의 눈은 짓밟혀 더러워지면서도 사라지지 않으니,
남루하다 못해 비굴해 보입니다.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존경받습니다.
모두가 떠나주기를 바라는데
떠나고 싶지 않다고 앉은 자리를 고집하면
사랑과 존경을 다 잃은 후에
3월의 눈처럼 초라하게 떠나게 됩니다.

눈이 되어 내릴 수 있다면 어디에 내리고 싶으세요?
높은 산에 내려 수묵화의 일부가 되어도 좋겠지만
그리운 사람의 눈길이 닿는 담장이나
지붕 위에 내리고 싶습니다.
눈물 되어 흐를 때까지 바라보고 싶습니다.

「생각라테」 중에서

